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지각적·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Perceptual, Attitudinal Body Images and Clothing Behaviors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송경자
강사 이미숙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Kyung Ja Song

Lecturer : Mi Sook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perceptual · attitudinal body images and clothing behaviors. The research method was survey and the subjects were 447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 Daejeon.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4 measuring instruments;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perceptual and attitudinal body images, clothing behaviors, and subject's demographic attributions. The data were analyzed by Cronbach's α , χ^2 test, t-test,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using SPS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dolescents had relatively high level recognition an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toward appearance, and they perceived very thin body type as ideal body and had high interest of their appearance and weight.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had important effects on adolescents' perceptual and attitudinal body images and clothing behaviors. The adolescents who are receptive to sociocultural value toward appearance had the tendency to distort their body as fat, showed high interest of their appearance and weight, and also showed high clothing interest & psychological dependency, clothing ostentation, and clothing conformity, but low clothing comfort than those who are not receptive to sociocultural value toward appearance.

주제어(Key Words)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지각적 · 태도적 신체이미지(perceptual · attitudinal body images), 의복행동(clothing behaviors), 청소년(adolescent)

I. 서론

현대사회의 신체적인 외모에 대한 중요성은 “Beauty is good” 즉,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으며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로 더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얻는다는 고정관념(한준상, 이춘화, 윤옥경, 2000)을 형성함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보여지는 다이어트 시장의 급속한 성장, 성형수술의 유행 및 전 연령층에 걸쳐 관찰되는 다양한 외모관리행동 등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인 매력 또는 아름다움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가치관이나 통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Richards, Boxer, Peter, & Abrecht, 1990). 현대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상은 날씬함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지나치게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Rudd & Lennon, 2001), 이러한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기준은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통해 강화된다.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여, 사람들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며 매스미디어에 의해 전달되는 가치관이나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강상현, 채백, 1996). 특히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며 아직 자아개념이 형성되지 않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로서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에 의해 전달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기 쉽다. 현대사회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타인의 신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중요한 비교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 자아개념, 외모관리행동 및 의복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청소년들이 현대사회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지각, 태도, 평가, 감정 및 반응을 포함하는 구성개념으로, 특히 청소년기

에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그 시대의 이상적인 신체상과 인지된 자신의 신체상의 차이가 적을수록 정서적으로 만족하며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Horn & Gurel, 1981).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이상적인 신체상과 자신과의 비교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어떠한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대사회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은 청소년의 의복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의복은 외모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고 매력적인 외모를 만들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들의 의복행동에도 반영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의복은 자아의 구성요소로서 자기에 대한 정체감, 기분, 태도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상징이므로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들의 내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개념과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지각적 ·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현대사회의 신체적인 외모에 대한 중요성은 사람들이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이상과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형성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타인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고 의식하게 만들며 이때 형성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신체이미지, 자아개념, 외모관리행동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Thompson & Heinberg, 1999)

홍금희(2006)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개인의 미에 대한 수용과 기호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으며, 이수경과 고애란(2005)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여자 중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자기존중감, 의복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선명과 고애란(2001)은 청년기 여성은 매스미디어에 비취지는 이상적인 외모를 통해 이상적인 미의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외모에 대해 열중하는 인지적, 행동적 성향이 매우 높다고 하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인지적, 행동적 차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 역시 이 시기에 가장 강하게 표현된다고 하였다.

2.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란 한 개인이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상으로서, 자아개념의 근본적인 핵심요소이며 평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신체이미지는 크게 지각적인 신체이미지와 태도적인 신체이미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각적인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또는 왜곡하여 지각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신체평가, 자기우울감, 섭식장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Keeton, Cash, & Brown, 1990). Jacobi와 Cash(1994)는 남녀 대학생은 모두 자신의 신체사이즈를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여자들은 자신의 사이즈보다 더 마르고 큰 키의 체형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김으로써 자신이 실제보다 더 뚱뚱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였다. Smith와 Cogswell(1994)은 정상체중인 소녀들 중에서 미국인은 43%, 오스트리아인은 30%, 자마이카인은 13%만이 자신을 과다체중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이 속한 사회적·문화적인 특성이 신체이미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임경희(2005)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여학생의 87.8%가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정상체형인 학생의 69.6%가 자신이 비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신체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태도적인 신체이미지란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갖고 있는 느낌, 평가, 행위 등을 말하며,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및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Duke-Duncan, Ritter, Dornbusch, Gross와 Carlsmith(1985)는 소녀들은 성숙됨에 따라 자신의 체중에 불만족하여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지니는 것으로 보여지나, 소년들의 신체이미지는 신체적인 발달과 함께 긍정적으로 변화된다고 하였다. 8 ~ 16세의 대상으로 한 Mendelson, White와

Mendelson(1995)의 조사결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외모에 대해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소년들은 소녀들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애란과 김양진(1996)은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중학생이나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이미지는 의복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송경자와 김재숙(2005)은 신체이미지에는 실제 자신의 체형크기보다는 지각된 체형크기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 자신을 마른 체형으로 인지할수록 자아개념과 의복 과시성이 높았고 자신의 신체지각에서 왜곡이 적을수록 자아개념이 높다고 하였다. 김광경, 이금실과 정미실(2001)은 외모와 몸매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의복에서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신체를 돋보이려고 노력하며 의복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하고 성적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3. 의복행동

의복행동이란 의복에 대한 태도, 관심, 선호, 그리고 착용 습관 등을 의미하며 개인의 내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심리적인 변화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몰두하게 되어 의복에 대한 심리적인 동요가 심하고 의존도가 높다. 또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의복을 중요시하고 새로운 유행이나 의복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으므로, 의복이 인간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크게 적용되는 시기이다(Horn & Gurel, 1981).

Ryan(1966)은 청소년기는 친구들과 비슷한 행동과 외모를 지니려는 성향이 높다고 하였으며 외모와 의복에 대한 태도는 기분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의복을 잘 입었다고 느낄 때는 더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 되며, 부적절한 의복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윤창숙(1983)도 청소년기에는 의복에 따른 동요가 심하여 의복이 주는 느낌이나 분위기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 심리적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청소년들은 타인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며 승인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의복을 통한 과시욕구가 크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미실(1984)은 의복의 만족도, 동조성, 중요성 및 안락감의 4가지 측면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동조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애란과 김양진(1996)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동조를 많이 하

고 심리적으로 의복에 의존한다고 하였고, 이부희, 고애란과 김양진(1996)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의복에 대한 관심과 심리적인 의존성이 높고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Kim과 Lee(1998)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에 대한 흥미가 높았으며, 연령에서는 청소년 초기집단이 중기와 후기집단에 비해서 의복에 대한 흥미가 낮고 의복에 대한 동조경향이나 심리적인 의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송경자와 김재숙(1999)은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과시성과 심리적 의존성이 높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지각적·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이미지, 의복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비교분석해본다.
- 연구문제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측정도구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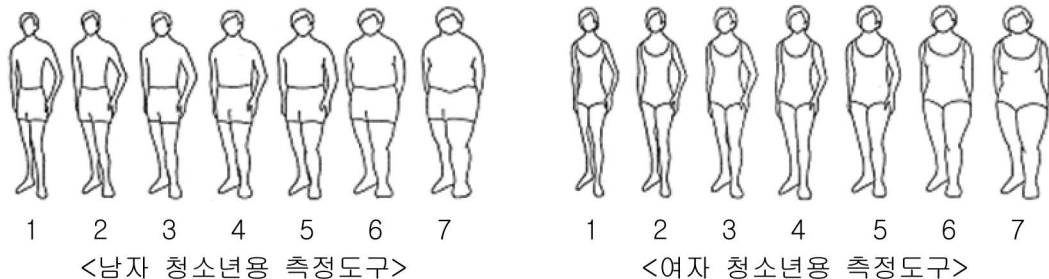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설문지법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측정도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지각적·태도적 신체이미지, 의복행동 및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등 크게 4범주로 구성되었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측정도구로는

Heinberg *et al.*(1995)에 의해 개발된 SATAQ(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ATAQ 척도의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피험자를 대상으로 SATAQ 척도의 타당성을 조사한 선행연구(이상선, 오경자, 2003)의 결과를 토대로 측정문항을 선정하였으며,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을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측정도구는 5점 척도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신체이미지 측정도구는 지각적인 신체이미지와 태도적인 신체이미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지각적인 신체이미지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이미숙(2000)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자신과 가장 유사한 모습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의 모습, 이상적인 신체조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태도적인 신체이미지 측정도구는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의 하위척도 중 외모와 관련된 척도인 외모평가 척도(Appearance Evaluation Subscale), 외모지향척도(Appearance Orientation Subscale), 체중관심 척도(Overweight Preoccupation Subscale)의 문항을 토대로 제작되었으며 외모지향 척도문항 중 신체적인 외모가 아닌 의복에 대한 문항은 의복행동 측정문항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1차로 제작된 신체이미지 측정도구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결과를 통해 다시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신체이미지 측정도구는 외모평가, 외모관심, 체중관심에 대한 5점 척도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의복행동 측정도구는 청소년의 의복행동을 조사한 선행연구들(고은주, 장남경, 2003; 이미숙, 2000; 하주연, 고애란, 정미실, 2005)을 토대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의복행동으로 나타난 의복 흥미성, 심리적 의복의존성, 의복 과시성, 의복 동조성, 의복 안락성에 대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될 의복행동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해 먼저 선행연구에서 의복행동 측정문항을 선별하여 총 23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측정도구를 제작하여 예비조사를 실시



<그림 1> 지각적인 신체이미지 측정도구

하였다. 예비조사 분석결과, 측정문항은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에서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과 2개 요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항은 제외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의복행동 측정문항은 5점 척도의 총 19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 피험자의 성별, 연령, 학교, 학년, 키, 체중 등을 묻는 인구통계학적 측정문항이 설문지에 포함되었다.

3.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중학생과 고등학교생으로 총 447명이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었다.

〈표 1〉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집단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남 자	108(50.5)	106(49.5)	214(47.9)
여 자	116(49.8)	117(50.2)	233(52.1)
전 체	224(50.1)	223(49.9)	447(100)

4.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등학생 100명을 편의표집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태도적인 신체이미지, 의복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57~.88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7년 2월에 실시하였으며 답십선생님의 도

움을 받아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설문지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총 46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5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47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5.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ver.11.5)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χ^2 test, t-test, 요인분석, 군집분석이 실시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구성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면화와 인식의 두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4.56%로 나타났다. 내면화 요인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38.23%의 설명력을 지녔고, 인식 요인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16.3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와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평균점수를 알아본 결과, 내면화 요인의 평균점수는 3.48, 인식 요인의 평균점수는 3.34로 측정문항이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임을 고려해볼 때, 두 요인의 평균점수는 모두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구성차원

요인명	요인 구성 문항	요인 적재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계수	평균 점수
내면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날씬한 사람들의 모습은 나도 날씬했으면 하고 바라게 만든다.	.84	38.23 (38.23) .80	3.48
	TV나 영화에 나오는 날씬한 연예인들의 모습은 내가 목표로 생각하는 유형의 외모를 보여준다.	.80		
	나는 패션모델이나 유명 연예인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곤 한다.	.79		
	나는 흔히 패션잡지를 보고 내 외모를 모델들과 비교한다.	.74		
	나는 옷은 날씬한 모델이 입어야 더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72		
	나는 내가 수영복 모델 같은 몸매였으면 하고 바란다.	.66		
나는 패션잡지에 나오는 모델처럼 보이길 바라지 않는다.*	.54			
인식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81	16.33 (54.56) .57	3.34
	오늘날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몸매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76		
	사람들은 마를수록 옷맵시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71		
	우리 사회에서는 뚱뚱한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65		
	오늘날의 사회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62		

주. *표시된 문항은 요인분석시 결과의 해석을 위해 측정문항의 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입력한 문항임.

따라서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내면화 요인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 요인에서는 성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에서 차이를 보여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n = 440(%)

집단구분	내면화		인식		
	M(SD)	t	M(SD)	t	
성별	남자	3.22(.73)	-7.48***	3.36(.80)	.60
	여자	3.72(.67)		3.32(.79)	
연령	중학생	3.30(.76)	-5.21***	3.06(.79)	-7.92***
	고등학생	3.66(.68)		3.62(.70)	

*** p < .001.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현대사회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강화되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가치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연령의 증가와 함께 인지의 수준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기 또한 길어지고 이를 통해 연속적, 점진적인 강화가 일어나 매스미디어에 의해 보여지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외모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인식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으나 남자는 이러한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약한 반면 여자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외모의 매력성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큰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1) 지각적인 신체이미지

남녀 청소년의 지각적인 신체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체형, 이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체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지각한 자신의 체형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이상적인 남녀의 체형은 청소년의 성별과 관계없이 남자의 경우는 3번이, 이상적인 여성은 2번이 현재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남녀의 체형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녀의 키와 체중을 알아본 결과에서도 남자는 평균 키 181.2cm에 체중 69.1kg, 여자는 167cm에 체중 50.2kg이 이상적인 신체조건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남녀 청소년들은 매우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남녀의 신체조건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사회의 날씬함에 대한 선호가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표준체형보다 많이 마른(2번의 경우는 인구분포도에서 전체의 10% 미만에 해당되는 영역임) 체형이 이상적인 것으로 지각되고 있어,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민감한 여학생들의 신체이미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신체이미지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상적인 신체상과 자신이 인지한 자신의 신체상과의 불일치 정도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자아와 이상과의 불일치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이상적인 신체상과 일치한다고 대답한 청소년들은 전체의 20.9%에 불과했으며, 그 나머지는 자신이 이상적인 신체상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고, 특히 자신이 이상적인 신체상보다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전체의 55.2%인 것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체중조절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4〉 청소년이 지각한 자신의 체형과 이상적인 체형

n = 445(%)

지각적인 신체이미지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	
	1	2	3	4	5	6	7
자신의 체형	22(4.9)	104(23.4)	125(28.1)	107(24.0)	57(12.8)	22(4.9)	7(1.8)
이상적인 남성체형	4(0.9)	64(14.4)	274(61.6)	90(20.2)	12(2.7)	1(0.2)	0(0.0)
이상적인 여성체형	50(11.2)	256(58.9)	82(18.9)	46(10.6)	1(0.2)	0(0.0)	0(0.0)

한편,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빠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자아와 이상과의 불일치 정도가 청소년들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이상적인 신체상과 불일치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는 남녀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의 경우는 이상형보다 마른 것(36.9%)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이상형보다 뚱뚱한 것(39.7%)으로 지각한 경우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69.9%가 자신이 이상형보다 뚱뚱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자아/이상 불일치
n = 440(%)

집단구분	자아/이상 불일치			x ²	
	이상형보다 마름	이상형과 일치	이상형보다 비만함		
성별	남자	79(36.9)	50(23.4)	85(39.7)	49.09***
	여자	26(11.5)	42(18.6)	158(69.9)	
연령	중학생	66(30.0)	46(20.9)	108(49.1)	9.94**
	고등학생	39(17.7)	46(20.9)	135(61.4)	
전체	105(23.9)	92(20.9)	243(55.2)		

p < .01. *p < .001.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경우에서는 권상우, 비와 같이 전체적인 실루엣은 날씬하지만 운동을 통해 근육이 발달한 긴장한 체격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이 이상형보다 마른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도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날씬한, 가늘고 긴 체형이 선호되고 있어 자신이 이상형보다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에 참가한 여자 청소년의 BMI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6.7%가 정

상체형이거나 마른 체형임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결과는 현대 여자 청소년들의 건전한 신체발달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Smith와 Cogswell(1994)의 비교문화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한국 청소년들이 자신을 비만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한국 여성들은 자기 신체를 타인의 평가에 근거해서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외모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왜곡해서 지각하며 다이어트 등의 체중조절행동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강상현, 2000)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자아와 이상과의 불일치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서로 차이를 보여,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자신이 이상적인 신체상보다 뚱뚱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업에 치중되는 생활을 함에 따라 중학교 시기보다 일시적으로 뚱뚱해질 가능성이 더 많으며, 또한 청소년들이 자라나면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고정관념에 더욱 많이 노출되고 이를 자신의 기준으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연령의 증가와 함께 자신이 이상형보다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경향 또한 더 증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2) 태도적인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 관심, 외모평가, 체중관심의 3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9.33%로 나타났다. 외모관심 요인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모가 멋지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며, 외모평가 요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체중관심 요인은 자신의 체중변화에 민감하며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대해 관심을 갖는 내용을 말한다.

〈표 6〉 신체이미지의 구성차원

요인명	요인 구성 문항	요인 적재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계수	평균 점수
외모 관심	나는 아침에 몸치장이나 머리모양이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인다.	.81	25.64 (25.64)	3.38
	나는 항상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81		
	나는 자주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살펴본다.	.79		
	나는 나의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71		
외모 평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82	21.62 (47.26)	3.03
	나의 외모는 매력적이다.	.81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68		
	나는 외모 때문에 이성친구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55		
체중 관심	나는 항상 비만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80	12.07 (59.33)	2.70
	나는 절식 및 단식 등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다.	.74		
	다른 사람이 살찐다는 소리를 하면 내 몸무게가 늘지 않았어도 신경이 쓰인다.	.68		

주. *표시된 문항은 요인분석시 측정문항의 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입력한 문항임

〈표 7〉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태도적인 신체이미지

집단구분		외모관심		외모평가		체중관심	
		M(SD)	t	M(SD)	t	M(SD)	t
성별	남자	3.24(.79)	-3.75***	3.00(.62)	-1.24	2.36(1.00)	-7.25***
	여자	3.51(.75)		3.06(.50)		3.01(.88)	
연령	중학생	3.42(.83)	.92	2.95(.49)	-3.30***	2.60(.92)	-2.14*
	고등학생	3.35(.73)		3.11(.51)		2.80(1.05)	

* $p < .05$, *** $p < .001$.

한편, 청소년들의 태도적인 신체이미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알아본 결과, 외모관심 요인의 평균점수는 3.38로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적인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에 대한 평가는 3.03으로 보통정도였고, 체중에 대한 관심은 2.70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적인 신체이미지가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의 태도적인 신체이미지는 성과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심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자보다 여자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평가 요인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 전기의 청소년들이 후기의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이미숙, 2000; Richards et al., 1990)

의 결과와 일치하는데, 사춘기의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에 걸쳐 빠른 신체적인 변화를 겪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변화된 신체에 대한 심리적 부적응 현상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신체의 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안정기에 접어든 고등학생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라 판단된다. 체중관심 요인에서는 성과 연령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의복행동

의복행동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복 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 의복 과시성, 의복 동조성, 의복 안락성의 4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9.71%로 나타났다.

〈표 8〉 의복행동의 구성차원

요인명	요인 구성 문항	요인 적재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계수	평균 점수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	나는 옷을 꼭 사지 않더라도 옷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79	33.79 (33.79) .88	3.37
	나는 새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74		
	나는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항상 관심 있게 살펴본다.	.72		
	나는 옷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70		
	나는 옷이나 악세서리로 변화를 주는 것이 즐겁다.	.69		
의복 과시성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으면 외출하기 싫어진다.	.68	12.36 (46.15) .77	3.19
	나는 일상생활이 단조롭게 지루할 때 옷을 바꾸어 기분전환을 한다.	.65		
	나는 옷차림에 따라 기분이 명랑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한다.	.54		
의복 동조성	나는 비록 시선을 끈다 해도 독특하고 개성 있는 옷을 입기를 즐긴다.	.83	7.36 (53.51) .67	2.57
	나는 남의 눈을 끌지 않는 평범한 옷을 선택하는 편이다.*	.72		
	같은 스타일, 같은 값의 옷이라면 나는 눈에 띄는 옷을 선택하겠다.	.72		
의복 안락성	나는 친구들이 입고 있는 스타일이나 색상의 옷을 선택한다.	.78	6.20 (59.71) .58	3.11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옷을 입기를 좋아한다.	.73		
	나는 새 옷을 살 때 친구들이 싫어하는 옷은 사지 않는다.	.64		
의복 안락성	나는 유행이 지난 옷이나 약간 낡은 옷이라도 편하면 입는다.	.77	6.20 (59.71) .58	3.11
	나는 내 친구들이 좋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옷을 그냥 입는다.	.60		
	나는 겉모양이 좋은 옷보다는 입어서 편안한 옷을 좋아한다.	.60		

주. *표시된 문항은 요인분석시 결과의 해석을 위해 측정문항의 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입력한 문항임

〈표 9〉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의복행동

집단구분		의복관심/심리적의존성		의복 과시성		의복 동조성		의복 안락성	
		M(SD)	t	M(SD)	t	M(SD)	t	M(SD)	t
성별	남 자	3.07(.82)	-7.78***	3.12(.90)	-1.58	2.57(.70)	.03	3.17(.67)	1.75
	여 자	3.65(.73)		3.25(.80)		2.57(.67)		3.06(.70)	
연령	중 학생	3.29(.90)	-2.12*	3.14(.90)	-1.08	2.63(.68)	2.01*	2.99(.68)	-3.97***
	고 등학생	3.45(.84)		3.23(.81)		2.50(.69)		3.24(.67)	

* $p < .05$, *** $p < .001$.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 요인은 의복에 많은 관심을 지니며 옷차림에 따라 명량해지거나 우울해지는 등 심리적으로 의복에 의존하는 경향을 말하며, 33.79%의 설명력을 지녀 청소년들의 의복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복 과시성 요인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독특하고 개성적인 옷을 입음으로써 타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청소년들의 심리가 반영된 의복행동을 말하며, 의복 동조성 요인은 친구와 유사한 의복을 입고자 하는 내용이고, 의복 안락성 요인은 유행이나 타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고 입었을 때 편안한 의복을 선호하는 내용을 말한다.

각 의복행동 요인별 평균점수를 알아본 결과,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 요인의 평균점수는 3.37로 의복행동 요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청소년들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의복차림에 따라 심리적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과시성 요인의 평균점수는 3.19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여,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의복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안락성 요인은 3.11로 나타났다. 의복 동조성 요인은 2.57로 중간 이하의 점수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유사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선호경향 때문에 다른 사람과 유사한 의복차림을 하는 것을 개성이 없고 패션에 대한 감각이 뒤떨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의복행동이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의복 과시성을 제외한 3 의복행동 요인에서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 요인에서는 성과 연령 모두에서 차이를 보여 남자보다 여자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의복에 관심이 많고 심리적으로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고애란, 김양진, 1996; 이부희, 고애란, 김양진, 1996) 결과를 지지한다. 의복 동조성 요인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또래집단과 유사한 의복차림을 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의복 동조를 많이 한다고 한 정미실(1984)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데,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자아개념의 발달이 아직 미성숙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므로 또래집단에서의 승인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의복동조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의복 안락성 요인에서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유행이나 타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고 편안한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수준에 따라 청소년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K 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집단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라 비수용형과 수용형의 2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비수용형

〈표 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군집유형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비수용형 (n = 185)	수용형 (n = 259)	t
	M(SD)	M(SD)	
내면화 요인	2.92(.60)	3.88(.56)	299.94***
인 식 요인	2.65(.57)	3.82(.54)	484.37***

*** $p < .001$.

〈표 11〉 군집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444$ (%)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수용형 (n = 185)	수용형 (n = 259)	χ^2
	N(%)	N(%)	
성 별	남 자	101(54.6)	5.57**
	여 자	84(45.4)	
연 령	중학생	130(70.3)	53.29***
	고등학생	55(29.7)	

** $p < .01$, *** $p < .001$.

〈표 1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별 청소년이 지각한 자신의 체형과 이상적인 체형

n = 445(%)

신체 이미지	태도 유형	마른체형 ←		표준체형			→ 비만체형		χ ²
		1	2	3	4	5	6	7	
자신의 체형	비수용형	11(5.9)	37(20.0)	59(31.9)	47(25.4)	20(10.8)	8(4.3)	3(1.6)	5.48
	수용형	11(4.3)	67(26.1)	65(25.3)	59(23.0)	37(14.4)	14(5.5)	4(1.5)	
이상적인 남성체형	비수용형	1(0.5)	16(8.7)	105(57.1)	54(29.3)	7(3.8)	1(0.5)	0(0.0)	27.75***
	수용형	3(1.2)	48(18.6)	168(65.1)	35(13.6)	4(1.6)	0(0.0)	0(0.0)	
이상적인 여성체형	비수용형	14(7.9)	89(50.3)	48(27.1)	25(14.1)	1(0.6)	0(0.0)	0(0.0)	22.30***
	수용형	36(14.1)	164(64.3)	34(13.3)	21(8.2)	0(0.0)	0(0.0)	0(0.0)	

***p < .001.

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의 정도가 낮은 집단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약간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수용형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의 정도가 높은 집단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약간 더 많으며 연령에서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성별보다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보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준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조선명과 고애란(2001)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집단이 외모와 관련되어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신체에 대한 개념이 최고를 이루며 신체에 대한 감정상태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밀접히 연관된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지각적인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청소년 유형에 따라 지각적인 신체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자신의 체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청소년이 지각한 이상적인 남성체형은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비수용형은 전체의 57.1%가 3번 체형(표준체형보다 약간 날씬한 체형)을 가장 이상적인 남자체형으로 지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9.3%가 4번 체형(표준체형)을 이상적이라고 지각하였으나, 수용형은 전체의 65.1%가 3번 체형을, 그 다음으로는 전체의 18.6%가 2번 체형을 이상적인 남자체형으로 지각하여 수용형이 비수용형에 비해 더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여성체형에 대한 응답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 비수용형은 이상적인 여성체형으로 2번(50.3%), 3번(27.1%), 4번(14.1%)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수용형은 2번(64.3%), 1번(14.1%), 3번(13.3%)의 순으로 나타나, 수용형은 비정상적으로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여성체형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수용하는 청소년 유형은 그렇지 않은 유형에 비해 남녀 모두에 대해 매우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별 자아/이상 불일치

자아/이상 불일치	비수용형 N(%)	수용형 N(%)	χ ²
이상형보다 마름	59(32.2)	48(18.1)	12.64**
이상형과 일치	38(20.8)	53(20.9)	
이상형보다 비만	86(47.0)	155(61.0)	

**p < .01.

한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에 따라 자아와 이상과의 불일치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이상 불일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청소년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신이 이상적인 신체유형보다 마른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은 비수용형(32.3%)이 수용형(18.1%)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이 이상적인 신체유형보다 뚱뚱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은 수용형(61.0%)이 비수용형(47.0%)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형의 청소년들이 비수용형에 비해 더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지각함에 따라 자신이 이상형보다 뚱뚱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수용적인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비교기준으로 지각하여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를 왜곡하여 평가함으로써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바람직한 자아개념과 신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개인의 미에 대한 수용과 기호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며(홍금희, 2006), 매스미디어를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신체기준으로 설정하여 자신의 신체를 비만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자신의 신체에 비해 불만족하고, 자신이 정상체형이거나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더 마르기를 선호하여 구토 및 단식 등의 체중조절행동을 수행하거나 섭식장애 병리현상을 보인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Backer, Burwell, Gilman, Herzog, & Hamburg, 2002; Groesz, Levine, & Murnen, 2002; Harrison, 2001)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태도적인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청소년 유형에 따라 태도적인 신체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에 따라 외모관심과 체중관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수용형이 비수용형에 비해 외모에 관심이 높고 체중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이어트 등의 체중조절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에 따라 외모평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별 태도적인 신체이미지

태도적인 신체이미지	비수용형 M(SD)	수용형 M(SD)	t
외모 관심	3.01(.74)	3.65(.70)	-9.21***
외모 평가	3.03(.48)	3.02(.53)	.32
체중 관심	2.35(.89)	2.94(.99)	-6.59***

***p < .001.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현대사회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은 외모관심과 체중관심 등 신체나 외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몰두하게 하는 외모지향적인 성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비교를 하고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미디어 가치를 내면화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가치는 자신의 신체에 중요성을 부가하고 열중하게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조선명, 고애란, 2001)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평가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외모평가에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에 주위의 중요한 타인(부모, 교사, 또래집단)의 영향, 사회성, 자아존중감, 의복 및 외모관리행동 등과 같은 다른 여러 중요한 변인들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청소년 유형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에 따라 의복행동 요인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유형별 의복행동

의복행동	비수용형 M(SD)	수용형 M(SD)	t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	3.01(.80)	3.63(.74)	-8.35***
의복 과시성	2.87(.83)	3.41(.81)	-6.86***
의복 동조성	2.48(.68)	2.63(.68)	-2.30*
의복 안락성	3.25(.67)	3.02(.70)	3.42***

*p < .05, ***p < .0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용형은 의복에 관심이 많고 심리적으로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개성있고 독특한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낮지만 비수용형에 비해서는 친구와 유사한 의복차림을 하는 편이며 자신이 좋아하고 편안한 의복보다는 불편하더라도 유행경향에 맞으며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하려는 타인위주의 의복행동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용형은 의복관심이나 심리적 의존성은 중간수준이며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적고 친구들과 유사한 의복차림을 선호하지 않으며 유행경향이나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고 입어서 편한 의복을 착용하려는 의복행동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청소년들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나의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대사회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 및 의복행동에 높은 관심을 지니고 몰두하도록 하며 의복을 통해 자신을 매력있고 개성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가치는 신체이미지에 변화를 가져오고 의복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상적인 신체모습을 이루려는 방향과 기대를 설정하도록 한다는 선행연구(조선명, 고애란, 2001)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지각적,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현대사회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내면화되는 경향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들의 지각적인 신체이미지를 살펴보면, 이상적인 남녀의 체형으로 매우 마른 체형을 선호하였고 자신이 이상형보다 뚱뚱하다고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적인 신체이미지에서는 자신의 외모에 높은 관심을 지니며 외모평가는 보통이었고 체중관심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중관심의 경우는 표준편차가 다른 요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일부 청소년의 경우는 높은 체중관심과 체중조절행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청소년들의 의복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과 의복과시성이 크고 의복 안락성은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며 의복 동조성은 이전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유행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경향으로 인해 친구와 같은 스타일, 색상 등의 유사한 의복을 입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수용하는 청소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매우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남녀 체형으로 지각하고 있어 자신이 이상형보다 뚱뚱하다고는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컸으며 외모와 체중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매스미디어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작시에는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정에서는 TV 시청시 청소년들이 올바른 시각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교에서는 건전한 신체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수용하는 청소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 의복 과시성, 의복동조성이 높고 의복 안락성은 덜 중시하는 타인위주의 의복행동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비수용적인 집단은 자기위주의 의복행동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고 일부 지역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의 지각적,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모두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객관적·주관적인 신체에 대한 지각을 통한 신체왜곡현상, 신체에 대한 불만족 정도와 섭식장애, 외모관리 및 변형욕구 등의 다양한 신체이미지 측면과 의복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상현(2000). 다이어트 심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강상현, 채백(1996).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한나래.
- 고애란, 김양진(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 고은주, 장남경(2003). 연령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 연구를 통한 패션마케팅전략제안. **대한가정학회지**, 41(12), 13-26.
-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58-365.
- 송경자, 김재숙(1999). 신체이미지·신체왜곡 및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태도적·지각적 신체이미지 측정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5), 68-79.
- 송경자, 김재숙(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요구, 자아개념, 의복행동-다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

- 학회지**, 29(3/4), 391-402.
- 윤창숙(1983).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숙(2000).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부희, 고애란, 김양진(1996). 남녀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5), 131-144.
- 이상선, 오경자(2003).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27-940.
- 이수경, 고애란(2005). 여자 중학생의 신체성장에 따른 신체 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한국의류학회지**, 29(3/4), 438-448.
- 임경희(2005). 신체이미지 수용과 여학생의 외모가꾸기. **보건과 사회과학**, 17, 107-132.
- 정미실(1984).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선명, 고애란(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 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 하주연, 고애란, 정미실(2005).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 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 **한국의류학회지**, 29(5), 715-726.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심리학**. 서울: 서원.
- 한준상, 이춘화, 윤옥경(200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홍금희(2006).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가 신체 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48-54.
- Backer, A. E., Burwell, R. A., Gilman, S. E., Herzog, D. B., & Hamburg, P.(2002). Eating behaviors and attitudes following prolonged exposure to television among ethnic Fijian adolescents girl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80, 509-514.
- Duke-Duncan, P., Ritter, P. L., Dornbusch, S. M., Gross, R. T., & Crismith, J. M.(1985). The effects of pubertal timing on body image, school behavior, and devia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227-235.
- Groesz., L. M., Levine, M. P., & Murnen, S. K.(2002). The effects of experimental presentation of thin media images on body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31, 1-16.
- Harrison, K.(2001). Ourselves, our bodies: Thin-ideal media, self-discrepancies,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in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3), 289-323.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orn, M. J., & Gurel, L. M.(1981).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Jacobi, L., & Cash, T. F.(1994). In pursuit of the perfect appearance: Discrepancies among self-ideal percepts of multiple physical attribut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5), 379-396.
- Keeton, W. P., Cash, T. F., & Brown, T. A.(1990). Body image or Body images?: Comparativ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s*, 54(1&2), 213-230.
- Kim, J., & Lee, M.(1998). The effects of body image, body satisfaction and some selected dimensions of clothing behaviors of 3 different adolescent age group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Culture*, 1(1), 1-13.
- Mendelson, B., White, D., & Mendelson, M.(1995). Children's global self-esteem predicted by body-esteem but not by weight, *Perceptual and Motor Skills*, 80, 97-98.
- Richards, M. H., Boxer, A., Peter, A. C., & Albrecht, R.(1990). Relations of weight to body image in public girls and boys from two commun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13-321.
- Rudd, N. A., & Lennon, S. J.(2001). Body image: linking aesthetics and social psychology of appearanc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9(3), 120-129.
- Ryan, M. S.(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 Hart and Winston, Inc.
- Smith, D. E., & Cogswell, C.(1994). A cross-cultural perspective on adolescent girls' body percep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8, 744-746.
- Thompson, J. K., & Heinberg, L. J.(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

접 수 일 : 2008년 11월 19일

심사시작일 : 2008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월 15일